

알테오젠, 글로벌 바이오시장 공략... 신약·시밀러 확대

황반변성 신약 'ALTS-OP-1' 출원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주' 확산
ALT-B4 수출, 머크·다이이찌 협업
1550억 유상증자... 시설 확충 추진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습성 황반변성 신약 후보물질 'ALTS-OP-1'에 대해 해외 특허 출원을 확보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ALTS-OP-1은 이중 항체 치료제로, 혈관 내피세포의 성장인자 VEGF와 혈관 발달을 조절하는 단백질 수용체 Tie2를 동시에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다.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발생

하는 질병인 습성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한다.

회사는 해당 약물 개발에서 기존 단일 항VEGF 약물의 저항성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항체 유사 신규 모달리티를 적용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시력 개선 효과까지 높이는 등 차별화에 주력한다.

알테오젠과 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신약개발에 앞서 바이오시밀러 개

발로도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다. 'ALT-L9'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일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알테오젠은 지난해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ALT-L9'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밖에 '테르가제주'는 알테오젠이 자사 기술력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제품이다. 이 물질은 국내 최초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로, 지난해 11월

출시된 후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16개의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서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주요 대학병원으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테르가제주는 핵심 물질로 'ALT-B4'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알테오젠은 ALT-B4 기술수출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도 성장 기반을 다진다.

실제로 지난해 말 ALT-B4를 기술수출한 파트너사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 산쿄로부터 계약금 2000만달러를 수령했다. 양사는 ALT-B4를 활용해 ADC 치료제 '엔허투'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한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도 ALT-B4 기술을 공급해 왔다. 머크는 현재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핵심 의약품 국가에서 ALT-B4 기술을 도입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는 지난해 11월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 올해는 제품 발매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내놓는 경우, 알테오젠은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 등으로 매출 측면에서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알테오젠은 실적 개선을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충하는 전략도 펼친다. 지난달 생산 공장 건설 및 본사 이전 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목적으로 15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라며 "기술력에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가능해 진다면 원가 절감, 안정적인 공급망 등 여러 이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코스맥스, 유통 전문가 허민호 영입... K뷰티 혁신 속도

올리브영·온스타일 이끈 경영 전문가
글로벌 사업 확장·신규사업 전개 박차
연매출 3조 목표... ODM 1위 입지 강화



부터 10년간 CJ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에는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허민호 부회장은 CJ 올리브영 재임 기간동안 화장품 유통 채널의 기반을 닦은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올리브영 단독 입점 브랜드를 늘리고, 자체 브랜드(PB)를 확대했다. 그 결과, 취임 첫 해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취임 당시 40개에 불과한 매장수를 1100개까지 늘리는 등 올리브영의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허민호 부회장은 독보적인 올리브영 성과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 산업에도 적극 대응한 탁월한 경영인으로 꼽힌다. TV 홈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확장되는 유통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CJ ENM 커머스부문에서 CJ 온스타일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당시 업계 처음으로 TV 홈쇼핑과 온라인몰을 통합한 'CJ 온스타일'을 선보여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했다. 또 새벽배송 등 물류 서비스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CJ ENM 커머스부문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코스맥스 그룹은 허 신임 부회장과 함께 신규 사업을 전개하고 글로벌 K뷰티 영토를 넓혀 연간 매출 3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허민호 부회장은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의 향후 10년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글로벌 고객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며 "혁신과 속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K뷰티 성장 동력의 중심에 코스맥스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케미칼 통증 치료제 라인업 확대

비아트리스와 '공동 판매' 계약

SK케미칼은 다국적 제약사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리리카, 뉴론틴, 세레브렉스 등에 대한 공동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전체 병원 대상 유통과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 마케팅을 맡게 됐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 마케팅은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담당한다.

말초와 중추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리리카',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뉴론틴' 등은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의약품이다.

SK케미칼은 환자과 의료진에게 한층 다양하고 효과적인 통증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멤버십 '뷰티포인트' 재단장 셀트리온 'ADC 항암 신약' 美서 임상 속도

포인트, 브랜드 구매 없이 자유 사용

아모레퍼시픽이 통합 멤버십 '뷰티포인트'를 전면 재단장해 새롭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 통합 멤버십 제도는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제품 구매 시 뷰티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브랜드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6개월 주기로 운영되는 '뷰티포인트' 제도는 실적 구간 달성 시 즉시 보상을 지급해 매년 최대 10만 포인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뷰티포인트 웹사이트는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제공한다. 뷰티포인트의 새로운 슬로건 '아름다움의



아모레퍼시픽 통합 멤버십 '뷰티포인트' /아모레퍼시픽

포인트를 발견하다'를 도입해 뷰티포인트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 뷰티 경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운영해 고객 접근성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 측 관계자는 "뷰티포인트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험의 지점(포인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T-P70' 美 FDA 1상 IND 승인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 'CT-P70'의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 시험계획서(IND) 승인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해당 임상을 통해 암 환자에서 단계적으로 약물 용량을 증량해 최대 내약 용량(MTD)을 확인하고, 약물 안전성, 면역원성, 초기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자 투여는 올해 중 개시할 예정이다.

'CT-P70'은 항암 신약 후보물질로 암세포에서 활성화돼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한다. 셀트리온은 CT-P70을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식도암 등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은 앞서 시험관, 동물실험 등 비임상 연구를 진행해 폐암, 대장암, 위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형암 모델에서 CT-P70의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 치료지수 측면에서도 임상 단계의 경쟁사 파이프라인을 능가하는 높은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같은 기전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CT-P70에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공동개발한 신규 페이로드 'PBX-7016'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PBX-7016은 낮은 독성과 높은 투여량을 갖춘 플랫폼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약물의 종양 내 침투 효과를 높인다.

동아제약

"구취·구강건강 한번에"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 출시

동아제약은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은 구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황화수소(썩은 계란 냄새의 원인)와 메틸메르캅탄(썩은 양파 냄새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데 특화했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가그린 후레쉬 브레스 치약을 사용한 직후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 모두 90% 이상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사용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두 물질 모두 80~90% 감소율을 유지했다. 이번 신제품은 구취와 함께 구강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불소 성분이 충치를 예방하고, 덴탈타입실리카 등의 성분이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청하 기자